

속 기록

- 회의명 : 제 359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시 : 2023. 6. 30(금) 14:00 ~ 16:20
- 장소 : 대학로 아르코미술관 3층 세미나실
- 출석위원 : 정병국 위원장

김미라 위 원

김진각 위 원

배은주 위 원

서승미 위 원

이훈경 위 원

장미진 위 원

장인주 위 원

정갑영 위 원

정정숙 위 원

정종열 위 원

홍성태 위 원

1. 성원 보고

정병국 위원장 : 제359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2023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발간지원 지원대상 결정의 건 등 의결안건 3건, 보고안건 7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김효은 노동조합위원장이 근로자를 대표해서 참석하셨고 회의 운영의 투명성과 제언 관리 효율성을 위하여 서유미 과장을 포함한 사무처 직원 2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 성원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사무처장은 성원 여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위원 12인 중에서 10인이 참석하셨습니다. 김진각 위원님과 배은주 위원님은 조금 늦게 참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개회 선언

정병국 위원장 : 예, 보고를 받으신 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 전차(前次) 회의결과

정병국 위원장 : 송시경 사무처장은 전차 회의의 주요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회의자료 3쪽입니다. 지난 5월 26일 개최한 제356차 전체회의에 의결안건 2건이 상정되어 2건 모두 원안 의결되었으며, 서면으로 개최한 제357차 회의의 의결안건 1건 그리고 제358차 회의의 의결안건 2건 모두 원안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4. 의결 사항

정병국 위원장 : 예, 그러면 지금부터 의결사항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결안건은 안건번호 제1011호 2023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발간지원 지원대상 결정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정대훈 문학지원부장이 비대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번호 제1011호로 자료는 7페이지이고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발표유형의 사업과는 달리 우수한 작품집을 발간하는 작가들에게 1,000만 원의 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6억 규모이고 60명의 작가를 지원하게 됩니다.

진행경과 표를 보시면 지원신청 접수는 모두 85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1차와 2차 심의를 진행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발표유형 지원사업과 동시에 3월 한 달간 접수가 진행되었고요. 4월과 5월에 걸쳐서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심의위원은 1차와 2차 모두 33인이 참여했습니다. 참여하신 심의위원 이력은 27페이지 붙임 4를 보시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심의기준과 심의방법 등은 자료를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정결과는 10페이지 표를 보시면 장르별 분포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두 60건의 지원결과와 18건의 예비후보를 결정했습니다. 지원결정자가 사정에 의해 사후에 지원 수혜를 포기하거나 취소가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서 예비후보에게 승계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 향후 추진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금일 의결이 되면 결과발표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7월 둘째 주에 선정작가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7월 셋째 주에는 지원금 교부를 시작하고 선정된 작가들은 본인의 계획에 따라서 금년도 연말까지 작품집을 발간하고 성과보고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하 결정내역이나 기타 심사총평 등은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 :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재단에도 이런 사업이 있나요?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지역문화재단에도 이런 창작지원 사업은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지원 규모 등이 다르며 지역마다 상이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갑영 위원 : 그러니까 다음 번에는 그런 것을 잘 정리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는데 우리 위원회는 어떻게 하고 지역과 예술위원회가 다른 점이 이것이라서 우리 예술위원회는 이런 식으로 한다.” 라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성격이 작가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작품집 지원의 성격인가요?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예, 작품집을 발간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가능성도 물론 가능성이지만 심사에 있어 1권 분량의 작품 전체를 요구하고 있고 작품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갑영 위원 : 그래서 소설의 경우에는 1,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시더라고요. 사업의 성격이

신진작가지원도 아니고 장래 유망한 작가들을 미리 발굴하는 지원도 아닙니다. 일종의 포상 성격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사업을 예술위원회에서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선정되신 분들을 보니까 교수나, 다른 직업이 있는 분들이 절반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성격이 애매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무엇을 지향하는 사업인가? 이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좀 분명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냥 진행한다고 치지만 다음번에는 이것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안 그러면 분야별로 적당히 우수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액수를 배분해 준다는 성격의 사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 내년에도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정말 우리나라 문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아르코문학창작기금사업은 전국에 있는 작가들에게는 매우 관심이 높고 참여 의지가 높은 사업입니다. 지역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해당 지역에 있는 작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하고, 지원금 규모도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규모로 저희 사업과 상이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과거부터 문학 분야의 개인 창작자 지원 사업으로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계속 유지되어 왔고 전국에 있는 작가들이 이 사업에 선정되었을 때 선정되었다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참여하는 작가들은 신진작가라던가 어떤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기성 작가들의 우수한 작품집을 발간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기로는 발간하고 나면 사후에 독자들과 만날 수 있는 지점을 만들 수 있는 후속지원을 해달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중인데요. 어쨌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뚜렷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 위원 :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지난 10여 년간 이 사업이 지속되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여기에서 지원을 받은 분들이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그래서 이 사업이 최소한 어떤 명성을 얻거나, 한국문학에 기여를 한 결과가 있어야지 “이 사업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예.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을 정리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갑영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정숙 위원 : 조금 전에 정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면서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발간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사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도 발간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지역문화재단들이 하고 있는

사업과의 차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자료들을 검토하시고 만들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예를 들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같이 전국단위에서의 발간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과의 차별성도 조금 더 덧붙여 조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장미진 위원 : 예, 일단 1,000만 원을 받겠다고 너무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셔서 지원선정률은 7%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중에 희곡 분야는 5%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주고도 욕을 먹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고 특히 2차 심의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 한 분이 결정을 하시더라구요. 희곡이나 뮤지컬을 보면 2차 심의는 한 분이신데 이렇게 결정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2차 심의를 한 분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1차 심의에서 통과되어 올라온 작품들에 대해 통합심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희곡에서 한 분이 참여를 하지만 문학 작품으로 희곡을 읽을 수 있는 평론가들도 다수 참여를 하고요. 그분들이 같이 심의를 하고 심의결과를 가지고 토론을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한 분이 결정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출판산업을 진작하기 위해서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 발간을 지원하는 이 사업을 대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미진 위원님 질문 중에 하나를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미진 위원 :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은 2가지였는데요. 2차 심의는 통합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동의 할 수가 없습니다. 수필을 하는 분과 희곡을 하는 분이 같이 심의한다는 것을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지원비율이 너무 낮아서요. 5%에서 7%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 사업을 다시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장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첫 번째 질문을 제가 놓친 것 같은데요. 죄송하지만 첫 번째 질문을 다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미진 위원 : 특별한 것은 없었는데요.

정병국 위원장 : 예. 그런데 신청비율이 굳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장르별로 어떤 비중으로 들어왔는지를 보시는 건가요?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예. 일단 신청비율에 근거해서 선정규모를 정하게 됩니다. 지금 생각이 낫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하지만 너무 적은 비중으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하고도 욕을 먹는 사업이 아닌가?” 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얘기도 맞고요.

정병국 위원장 : 아니요. 그게 맞는 게 아니고요. 선정률이 정확히 어느 정도 나와요?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850명이 신청했는데 그중에 60명이니까 10%가 안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7~8% 정도가 되거든요.

정병국 위원장 : 이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 별도의 창작물을 내는 게 아니라 기존에 활동했던 결과를 가지고 하는 건가요?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예. 작품을 모아서 발간계획을 제출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거네요? 그동안 작품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요.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예. 그렇기는 한데요. 저희가 이것의 범위를 좁혀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올해 안에 작품집을 발간할 계획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신청하십사하고 계약서도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간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1,000만 원이면 발간이 돼요?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그러니까 1,000만원 기금으로.

정병국 위원장 : 아니요. 현실적으로요.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충분히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적은 것도 아니죠. 발간이 되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예. 지금 발간 비율로 봤을 때는 전체 비중에서 95~96% 정도는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런데 이 사업은 발간하지 않아서 정산 처리를 하지 않고 미정산으로 남아 있는 건수가 꽤 많죠?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700여 건 중에 20건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그것도 올해 안에는 대부분 발간이 될 예정입니다. 그중에 혹시라도 미발간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집중관리 해서 발간을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홍성태 위원 : 여기에 보면 신청서류 누락 및 미비라든지 작품 중복 등 결격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것을 제외하면 신청자 수가 줄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격 건수가 굉장히 많네요.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예. 지난번 발표지원 사업 의결 보고를 드렸을 때도 동일한 내용으로 “결격의 비중이 높다.” 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발표지원사업과 발간지원사업을 동시에 접수받았습니다. 대부분 응모를 하시는 작가들이 마감기한에 임박해 서둘러서 제출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몇 가지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표, 발간 유형을 분리해서 공모를 진행하는 방식이나, 올해 결격건수가 많았기 때문에 다양한 결격유형들을 분류해서 분석하고 예시해서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준비해서 결격을 방지할 수 있는 안내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 그 다음 세 번째는 검토가 필요하기는 한데요. 신청접수기간을 조기에 완료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행정검토 도움기관을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작가분들이 신청할 때, 특히 연령이 높은 작가들 같은 경우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서 원격지원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검토해서 이런 방안들을 가지고 행정결격을 현저히 줄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대로 문학지원부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앞으로 안전을 제출하실 때 결과에 대해서 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여부, 있다고 하면 다른 기관에서 하는 사업과 우리 사업은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또 우리가 지향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셔서 우리 예술위원회가 하는 사업들의 차별성을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런 통계치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병국 위원장 : 두 번째 의결안건인 안전번호 1012호 2023년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공모 연극·창작뮤지컬분야 지원심의 결정의 건입니다. 본 안전은 홍승욱 공연예술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대본공모 연극·창작뮤지컬분야 지원심의 결정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340차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던 사업입니다. 사업 접수기간은 2022년 10월 4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연극, 뮤지컬 그리고 오페라 등 3개 분야에 대해서 신청접수를 받았습니다. 창작오페라는 지난 위원회 회차에서 의결되었던 사안이고 오늘은 연극, 창작뮤지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 예산은 원래 2억 원이었는데 창작오페라에서 4,000만 원의 잔여예산이 발생했기 때문에 연극과 뮤지컬에 각각 2,000만 원씩 추가 배분을 통해 총 2억 4,000만 원으로 이번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극은 작품별로 1,000만 원씩 정액지원을 하고 있고 창작뮤지컬은 작가, 작곡가 각각 1,000만 원씩 하여 5개 작품에 2,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민간경상보조가 아니라 포상금으로 지급되는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은 전담심의위원제도를 통해서 구성되었습니다. 심의위원 명단은 32쪽

에 연극분야 7인, 창작뮤지컬분야 7인인데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1차 예심 때 전체 215건의 작품을 심의하였고요. 2차 본심은 85건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작뮤지컬은 1차 예심 때 63건, 2차 본심 때 35건이 심의되었습니다. 2차 본심에 대한 대상 건은 종합평점 75점 이상을 준용한 작품에 대해서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본 사업은 블라인드로 심의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전수검토제, 온라인채점을 통해서 심의가 진행됩니다. 심의기준은 작품의 예술성이 80%를 차지하고 있고요. 작품의 무대화 발전 가능성을 20%로 두고 있습니다.

지원심의 결정 현황입니다.

총 18건에 2억 4,000만 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연극이 215건 가운데 12건, 창작뮤지컬이 15건 가운데 6건이 결정되었습니다. 보시면 행정결격이 총 38건 정도가 있는데요. 본 사업은 신작이어야 하고 블라인드 심의이기 때문에 타 지원사업에 선정된 작품 또는 기공연된 작품 그리고 희곡집을 통해서 발표된 작품들, 서류 미제출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해당 작품이 공개된 건 그리고 희곡 같은 경우 공동창작의 경우에는 불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상들이 주요 행정 결격 사항이었습니다. 34쪽을 보시면 분야별 심의 회피내역으로 창작뮤지컬 분야에 5인이 회피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오늘 오후 늦게라도 저희가 결과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본 안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포상적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기존에 공연된 작품에 대해서 배제를 한 이유가 뭔가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본 사업은 공연화 하기 위한 원소스인 대본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이훈경 위원 : 뮤지컬 1차 선정작에 보면 32번과 33번이 동일 인물이거든요. 작품은 다르고요. 이렇게 지원해서 1차 선정되는 것도 가능한 건가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훈경 위원 : 뮤지컬 1차 선정작 리스트에 보면 32번, 33번이 동일인의 다른 작품이거든요. 물론 최종에는 1건만 되었지만 이렇게 1차 선정에서 동일의 다른 작품이 선정되더라도 가능한 건가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은 누가 신청을 했는지 모르세요. 블라인드 심의이기 때문에 작품으로만 판단합니다. 만약 선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훈경 위원 : 최종 선정이 2개가 되면 조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맞습니다.

이훈경 위원 : 예.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진각 위원 : 33페이지를 보면 심의기준과 가중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의기준에 예술성이 80%고 무대화 가능성 그러니까 이것은 공연으로 만들어지느냐 안 만들어지느냐를 보는 것 같은데요. 80대 20으로 나눈 기준이 있나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희곡으로 보면 그 작품이 실질적으로 구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작품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희곡 자체로는 충분한 가치를 가질 수 있으나 무대화가 되지 못한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작품의 예술성을 가장 우선시하되 연출이나 이런 분들이 이 작품을 보고 “무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를 판단하고 아니면 출연진 100명을 상상해서 작가가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이 과연 “공연화 될 수 있느냐?” 무대장치나 기술적인 면을 포괄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를 보는 비중이 2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각 위원 : 이 비율이 적정한 건가요? 8대2로 설정한 게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그 당시에 저희가 작가들과 연출하는 분들과 같이 논의를 많이 했거든요. 이 비중이 적정하다고 당시에 판단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김진각 위원 : 상식적으로 보자면 대본이라는 게 공연화를 전제로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다르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요. 그리고 대본이 대본으로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품으로 만들어지고 관객들에게 수용되어야지 비로소 완성된다고 보는 건데요. 그렇게 본다면 예술성을 80%로 놓고 공연화 가능성을 20%밖에 안 놓는 비율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다시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사실 이 사업은 지원부서 사업 안에 있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연계할 수 있는 연계사업과의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대본공모를 포함한 공연예술창작산실이 극장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대화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작품성에 대한 부분들까지 포괄해서 조금 더 작품화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을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게 우리가 선정해서 지원한 대본이 실질적으로 공연이 된 비율에 대한 통계가 있어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아직은 좀 적습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후속 연계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작품들을 조금 더..... 그러니까 두산아트랩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기는 합니다. 원천 소스를 발굴하고 사업들을 통해서 계속 기획

화 해서 킬러콘텐츠 형태로 만드는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원사업 부서 안, 지원시스템 안에서만 존재하다보니 연계하기 위한 대안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는 유통프로모션이라고 해서 잔여예산이 남으면 이 작품들을 갖고 쇼케이스 형태로 일반 대중과 기획자, 제작사 등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갖게도 해 줬거든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매년 1~2개 작품은 작품화 되어 다음 연도에 공연도 하고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일반적으로 다른 사업들, 우리가 공연지원도 있잖아요. 그럴 때 심사할 때 예를 들어서 대본심사를 통해서 선정된 작품을 대본으로 삼아서 공연을 하겠다고 신청할 때 가점을 둔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해서 연계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떤지 검토를 해 보시죠.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진 위원 : 작은 것 하나만 여쭙보겠습니다. 창작뮤지컬 결격사유에 대리신청이 있는데 이것은 뭘까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신청할 때는 본인이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A라는 작가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B라는 기획자를 통해서 대리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00% 행정결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정숙 위원 : 저도 작은 것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원결정현황을 보면 신청건수 대비 선정비율이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 자체는 지역 균형은 고려하지 않는, 탁월성을 위주로 하는 사업인가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맞습니다.

정정숙 위원 : 그래서 지역 배려 같은 것은 전혀 없는 거죠?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작품 외에는 보실 수 있는 정보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정정숙 위원 : 지금 심의위원들의 경우 연극 분야는 성별이나 연령이나 지역 등에 따라 골고루 편성되어 있는데요. 뮤지컬 같은 경우 전부 서울 지역의 심의위원들만 계시거든요. 물론 뮤지컬 자체가 서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요. 이런 부분과 선정결과와 관련해서 조금은 연동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런 부분에서 심의위원을 구성할 때 조금 더 고민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뮤지컬 제작과 관련되어 있는 주요 창작진과 제작진들이 서울에 밀집되어 있고요. 그리고 뮤지컬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 대구입니다. 그런데 대구에 가서 심의를 하는 경우에도 거의 서울 소재의

전문가들이 갈 수밖에 없는 제한적 환경이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정숙 위원 : 그런 현상은 이해가 되는데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그런 문제점을 타파할 수 있는 변화의 움직임이 우리가 가져올 수 있도록 뭔가를 시도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알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 저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아니라 포상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첫 번째 질문은 3.3% 원천세로 나가는 건지? 아니면 상금으로 나갈 때 비율은 또 다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나가게 될 경우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결과보고를 하잖아요? 이것은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그냥 포상으로 나가고 끝나는 사업이네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본 사업은 시상에 관련된 사업이라서 원천세가 별도로 부가되지 않고요. 100% 그대로 지원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이미 작품을 저희에게 내서 그 작품에 대한 시상의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의결이 되면 위원장님께서 다 시상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훈경 위원 :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뮤지컬 분야별 심의 회피내역을 보면 ‘○○○○○ ○○○’에 2인이 회피를 하셨거든요. 이런 사유로도 회피가 가능한지도 궁금하고 가능하다면 이 작품이 최종 선정되어 있던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심의를 회피한다는 것 자체는 선정논의 자체에 관여를 하실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사업에 대해 점수 부여나 토론 자체도 불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타 위원님들의 의견에 의해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훈경 위원 : 그러면 회피 작품이 선정되는 것도 별문제가 없다는 거죠?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왜냐하면 해당 작품에 심의를 회피한 분은 이 작품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훈경 위원 :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심의 회피사유를 보니까 “익숙한 음악과 문체여서 내가 아는 분인 것 같다.” 라는 거잖아요? 소재와 구성이 기성작과 너무 유사해서 내가 회피를 했다는 것인데요. 나중에 보니까 1번으로 선정이 되셨어요. ‘○○○○○ ○○○’이라는 작품이요. 실제로 그것과는 문제가 없었는지?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그러니까 기존에 발표된 작품이 아닌 것은 저희가 2차, 3차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고요. 다만, 참여하셨던 심의위원님께서 해당 작품의 작가를 충분히 알 법한, 그러니까 음악의 작법이나 글의 내용들을 통해서 알법한 작가라서 해당 작품에 대해서는 회피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습니까?

정갑영 위원 : 희곡 대본이나 창작뮤지컬 대본을 쓰시는 작가들에 대한, 기성작가나 신진작가에 대한 데이터화는 다 되어 있어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전체 작가가 몇 분 정도 활동하시는지요?

정갑영 위원 : 그런 리스트나 데이터는 다 되어 있나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사실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공연예술 통계조사와 같은 것을 보면 개략적인 작가 수는 있는데요. 매년 작가가 새로 생겨나고 사라져서 당해연도의 정확한 데이터라고는 하기는 그렇지만 통상적인 데이터는 갖고 있습니다.

정갑영 위원 : 이 지원사업은 처음입니까? 아니면 해 왔던 사업입니까?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기성작가와 신진작가들이 최근에 같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갑영 위원 :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 선정되신 분들이 신진이라면 이런 것을 토대로 다음에 실질적으로 실연이 되는 단계로 나가시는지? 아니면 이것을 하고 끝나는 것인지 여쭙습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프로모션이 되어 타 재단이라든가 국립극단으로 작품을 가져가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지역문화재단에서 이 작품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갑영 위원 : 제 얘기는 그런 것을 파악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자료들이 데이터화 되어야 “이 사업을 하면 효과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했는데 결과가 없다면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라는 것이죠.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맞습니다. 보통 대본이 나오고 나서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작품화 되는데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정갑영 위원 :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예술위원회는 잘 갖고 있어야 할 것 같다는 겁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관찰하고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 위원 : 예.

정병국 위원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 원안대로 의결처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세 번째 의결안건인 안건번호 1013호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 규정 개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준화 지원총괄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개정(안)입니다. 심의위원 자격기준과 관련된 규정 개정(안)이고요. 지난주 20일 위원님들 전체 워크숍에서 이미 보고를 드렸고 논의를 해 주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신·구 조문대비표를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조 심의위원의 자격 관련입니다.

지난주 워크숍 때 보고드릴 때는 11호와 12호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창작과 관련해서 비평, 연구, 기획, 교육, 언론 분야가 11호로 있었고요. 복지, 성평등, 국제법률, 기타 분야가 12호로 있었는데요. 11호와 12호의 사항들이 1호의 창작 그리고 2호에 있는 내용들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1호와 2호로 합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대로 내용을 합쳤습니다. 기존과 현행을 비교해서 보면, 기존에는 10년 이상의 경력만을 요구했는데 지금 개정하는 부분에서는 10년 이상의 경력 외에 현직 종사자 또는 최근 5년 이내에 작품 참여자 그리고 창작 외 문화일반 등 기타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10년 이상 경력자 중에 최근 5년 이내 평가 및 심사참여자 또는 현직 종사자로 현장성에 대한 부분을 추가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아래쪽에 있는 심의위원 모니터링 결과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체부 감사 결과에 따라서 심의위원의 모니터링 결과가 현저히 저조할 경우에 심의위원회에서 배제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적용으로 예를 들어서 모니터링 점수 기준의 심의위원 직무수행지침과 같은 별도의 하부 지침들이 있습니다. 지금 규정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하부 지침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보고 사항

정병국 위원장 : 이어서 사무처장은 위원님들께 보고안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회의자료 54쪽입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7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고안

건인 2023년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사업 지원심의 결과에 대해서 홍승욱 공연예술부장이 연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체육기금 사업 2023년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사업 지원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 문예기금이 아닌 체육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매년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원장님의 결재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공모와 교부시기가 조금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 사업은 5월 9일부터 5월 25일까지 16일 간 접수를 받았습니다. 총 171건이 접수가 되었고요. 약 65억 정도의 규모로 신청액이 접수되었습니다. 전년대비 11건에 5억 3,5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상태로 신청접수가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입니다.

원로예술인에 대한 창작활동지원을 통해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예술 콘텐츠를 개발하는 목적과 체육기금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문화취약계층, 지역의 문화격차 해소 및 원로예술인 단체 활동 기반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예산은 9억 3,000만 원입니다. 지난해 대비 민간경상보조가 약 1,000만 원 정도 감액된 상태로 올해 예산 승인을 받았고요. 그다음 사업유형은 크게 보면 원로예술인들이 실연자, 제작진으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는 30% 이상이 원로예술인이어야 하고 유형2 창작자의 경우는 예를 들자면 연출, 극작, 각색, 작곡, 작사, 작장, 안무가로 활동하셨던 원로예술인이 지원신청하실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렇게 원로예술인이 많이 참여를 하다보니까 e나라도움, NCAS 등 사용에 여러 행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서 이 사업은 원로예술인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간접 지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171건이 신청되었고 그중에 행정결격이 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심의대상은 167건으로 심의를 하였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우 수도권이 약 67%, 비수도권이 33% 정도로 신청하셨고요. 아래에 보시면 각 장르별로 연극부터 공연예술의 형식을 갖춘 다원예술까지 5개 분야에 대한 지원신청 접수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결격이 4건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60세가 되지 않는 연령기준에 결격이 2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력 구성란에 해당 예술인이 원로예술인인지를 파악할 수 없는, 정보 미기재 경우가 1건 있었습니다. 그다음 실연진 구성 비율이 30%에 미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심의기준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50%, 충실성 30% 그리고 수행단체의 역량이 2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적격자 지정방식을 통해서 심의위원을 구성했습니다. 5개 분야에 각 2인씩 총 10인으로 구성하여 통합심의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 명단은 57페이지 중 반부터 하단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각각 장르별로 예산이 배분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라서 저희가 지원심의 운영기준에 따라서 통상 배분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각 장르별로 배분했습니다. 그래서 9억 3,000만 원 전체예산의 20% 정도를 전체 장르에 동일하게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80%는 전년 지원결정비율 그리고 전년 지원결정건수비율 그리고 당해연도 지원신청금액비율, 지원신청건수비율을 각각 4:1:4:1로 해서 80%를 각 장르별로 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자료가 58페이지 하단에 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굵은 볼드체로 체크되어 있는 박스가 각

장르별 배분이 된 예산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각 장르별로 선정 가능한 규모가 지난해 평균 지원금액을 갖고 산출했을 때 59페이지 상단의 표를 보시면 26개에서 30개 내외로 선정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입니다.

총 27건이 결정되었고요. 총 9억 3,000만 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연극·뮤지컬이 9개 작품, 무용이 2개 작품, 음악이 7개 작품, 전통예술이 7개 작품, 다원예술 2개 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지역지원 결정 현황을 보시면 수도권이 51.8%, 비수도권이 48.1%로 적용이 되어서 결정되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 후 확정이 되면 다음 주 초에 저희 누리집을 통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나 제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미라 위원 :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보겠습니다. 다원예술에 대해서 여쭙보겠습니다. 59페이지를 보면 전체적인 지원신청에 있어서 다원예술은 굉장히 비율이 적고 심의위원을 보니까 다른 분야에 비해서 굉장히 짧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2건이 선정된 작품을 보니까 이 부분도 다원예술이기는 한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다른 음악이나 타 분야와 변별력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분야에서 다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땠는지를 실무를 보신 분에게 여쭙보고 싶었습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사실 저희가 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할 때 늘 고려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창작산실 사업의 경우 선택과 집중이라는 주요한 키워드를 갖고 우수작품 중심으로 선정하는 사업이고요. 그 외에 체육기금과 같은 사업들은 일정 정도 문화예술진흥이라는 기관 차원의 목적을 가지고 수행해야 하는 예술위원회의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원예술 같은 경우에는 지원신청건수가 조금 미비하더라도 이후에 진흥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심의위원들께서 다원예술에 신청한 사업들의 수준이 많이 미비하면 선정을 안 하시고 예산을 남기셔서 타 분야 예산으로 이입을 하여 결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에서는 2건 정도는 충분히 사업을 수행할 만한 작품이라고 타 분야 심의위원님들도 동의를 해주셔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배은주 위원 :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창작자를 활성화하는 사업이잖아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관객도 그렇고 창작진도 그렇고요.

배은주 위원 : 그러면 원로예술인의 참여비율이 30%로 되는 것이 맞습니까?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실연자의 경우는 30%로 되어 있고요. 안무는 조금 다릅니다. 혼자 하셔도 됩니다.

배은주 위원 : 그러면 사업계획서 안에 30%의 원로예술인 증빙을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맞습니다.

배은주 위원 : 그러면 원로예술인이라는 증빙은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단체들이나 예술가들이 그분들을 실연자로 30% 이상 참여시킨 증빙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신청하는 사업이 많아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맞습니다.

배은주 위원 : 그러니까 그 부분. 어떻게 30%에 대한 증빙을 받는지가 궁금합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참여 예술가들에 대해서 당연히 존함과 이력사항을 작성하시게 되고 생년월일을 기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증빙자료까지 붙이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사업 중간에 사업계획 변경에 있어서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이 사업들은 당연히 저희가 반환 등의 절차를 통해서 처리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 그러면 30%가 기준이지만 그것을 넘는 참여 예술인이 더 있겠네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배은주 위원 :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정갑영 위원 : 원로예술인에 대한 창작활동지원. 이것이 자긍심을 고취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마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창작활동 영역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분들을 배려하는 사업의 성격 같은데 맞나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큰 목적은 그렇게 진행되는 게 맞습니다.

정갑영 위원 : 그런데 여기에 보면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60이면 한참 활동을 하는 분들인데요. 사업명으로 되어 있는 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현실하고 괴리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요. 오히려 명성이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겁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목적이라면.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체육기금 사업을 처음 승인받을 때 자격요건 기준을 60세 이상을 원로예술인으로 하여 문체부에서 승인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는 원로예술인 가운데 나이가 많으셔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후에 문체부와 계속해서 원로예술인에 대한 정의를 조금 더 고민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갑영 위원 : 그러니까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우리 예술위원회가 자율성을 가져서 판단하고 예를 들어 75세나 80세로 해서 영역에서 좀 벗어난 분들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죠. 문제부에서 70세라고 정해도 70세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는 거죠.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사실 장르별 특성이 또 있습니다. 무용 분야 같은 경우에는 60세면 분명히 원로가 맞거든요. 실연자로 활동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칙은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장르별 심의를 할 때 그 기준을 고시를 하시고요. 다른 분야는 상향을 해서 원래 사업의 취지대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문제없습니다.

이훈경 위원 : 항상 사업결과를 볼 때 배분에 대한 적정성 질문이 많은 것 같은데 저도 그 질문입니다. 통합적으로 보면 서울이 112개 지원에 14개 단체 선정으로 선정율이 8대 1 정도가 되고 타지역은 53개 지원에 13개로 선정율이 4.2대 1 정도가 되는데요. 연극과 뮤지컬만 따로 떼어서 보니까 69개 지원 중에 33개가 서울에서 지원했고 13개가 경기지역에서 신청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퍼센티지가 69개 단체 지원 중에 46개가 서울, 경기지역인데요. 선정된 것을 보면 서울이 2개, 경기가 2개입니다. 그래서 이 배분이 적정한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저희 지원심의 운영기준에 따르면 정시공모를 통해서 지역을 배분하는 비율이 올해는 약 24%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배분 24% 이상을 준용하면 문제가 없는 사업이고요. 더 적게 되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지역균형지원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임의로 작품을 보고 “서울이 많이 했기 때문에 서울을 더 많이 뽑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 자체도 저희가 심의에 개입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원심의 운영기준을 준용해서 사무처가 운영될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훈경 위원 : 그것도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아까 분야별로 서울에서 활동하는 분들 또는 뮤지컬 같은 경우도 제작사는 서울이 더 많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실연자들은 서울, 경기도에 다수가 몰려 있는데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선정하신 비율이 적은 것이면 다들 타지역으로 지원을 하지 않을까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타지역으로 주소를 옮기는 분들도 있는데요.

정병국 위원장 : 사전에 심의할 때부터 퍼센티지를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죠?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아닙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일단은 무작위로 하고 나서 그 기준에 못 미치면 그다음 것으로 올리나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맞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지방이 24% 안 들어오면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맞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블라인드로 해서 한 거잖아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정병국 위원장 : 그런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맞습니다. 만약 가능해야 된다고 하면 이 장르를 5개 분야로 나누어서 별도공모를 통해서 각각 개별심의를 통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중열 위원 : 이번에 실연제작진 유형1에서 창작자 유형2까지 확대를 했는데요. 아직 잘 모르셔서 어떤 분야에서는 신청을 많이 안 하시기는 했는데요. 전반적인 창작자 유형으로 내신 단체들의 수준이나 선정에서 의견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일단 전체 장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음악 분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참여하신 두 분의 심의위원님께서 가채점 결과에 대해서 통일된 의견을 주셔서 결정이 되었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창작자 분야는 사업이 처음 진행되었기 때문에 조금 적기는 한데요. 이후에 이 부분들은 확대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려운 점은 요즘 체육기금 상황이 많이 안 좋아서 이후 예산 증액이 가능한지는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중열 위원 : 예.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실연은 30%라고 정해져 있어서 원로예술인들을 투입할 수밖에 없지만 창작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만 있어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을 악용할 수 있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조금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심의기준을 적용할 때 조금 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진 위원 : 이훈경 위원님께서 아까 지역배분을 여쭙보신 이유가 제가 봐도 연극분야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이 왜 선정되었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로라고 하면 그래도 연극계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어야 될 텐데 전혀 알 수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작품성은 안 보나?” 하고 심의기준을 봤을 때 심의기준에 예술성이나 작품성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그냥 원로예술인이 몇 명 끼어 있으면 그냥 지역안배를 적용해서 하는 건가요? 기준이 뭔가요?

정갑영 위원 : 그런 식이죠.

장미진 위원 : 그러면 안 되죠.

정병국 위원장 : 이것은 지역안배도 한 게 아니라면서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지역은 48.1% 선정됐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그것을 전제로 해 놓고 하는 거지 처음부터 지역을 놓고 구분한 건 아니잖아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아닙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기준으로 이것을 선정한 겁니까?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저희가 갖고 있는 심의기준이 3가지가 있는데요. 이 심의기준을 지원신청서하고 참여하고 있는 예술가들의 내용 그리고 이 공연을 하기 위한 기획서를 바탕으로 심의가 진행됩니다.

서승미 위원 : 반드시 단체만 가능한가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단체만 가능합니다.

서승미 위원 : 그러면 앞의 내용에서도 원로예술인,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약간 이야기를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사업에 대한 명칭과 전체적인 내용이 와닿지는 않아요. 딱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과 유형 같은 경우도 A와 B가 있다면 그 유형의 구분별로 아예 심사를 따로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냈는데 그게 합해진 것인지가 지원사업의 내용에서 들어오지 않거든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신청 자체는 어느 유형으로 하든 자율적으로 단체가 선택을 하게 되고요. 심의는 통합해서 같이 진행됩니다.

서승미 위원 : 그런 내용이 전체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시 사업내용을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사실 올해도 심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 명칭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요. 그래서 각 심의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을 통해서 내년도 사업들을 개선하고 위원님들께서 제언해 주신 내용들을 고려해서 내년도 사업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더 의견 없으십니까?

김진각 위원 : 몇 가지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몇 년 된 사업인가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2016년에 문체부에서 예술위로 이관된 사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각 위원 : 그런데 사업의 이름이 원로예술인공연지원 사업인데요. 그러면 원로예술인 사업의 중심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유형1로 구분했을 때 원로예술인 참여자를 30%로 했는데요. 30%라는 것은 전체 공연에서 봤을 때 과연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주인공이 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사업에서 원로예술인이 정말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극을 끌고 가는 역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포커스가 원로예술인에게 맞춰지고 있는 사업이냐는 거죠.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그것도 기획서를 통해서 심의위원들께서 확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려하시는 것처럼 원로예술인들을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단체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참여하는 원로예술인들이 존중받고 주연이나 주요한 역할로 참여하는지도 심의에서 심의위원들이 점검을 하십니다.

김진각 위원 : 30%의 비중을 둔다고 하면 원로예술인공연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안 되죠. 원로예술인참여 공연지원 사업이라고 가야죠. 원로예술인공연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원로예술인들 중심으로 끌고 가는, 주도하는 공연으로 인식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원로예술인공연지원 사업에 선정된 작품들을 잘 모르겠어요. 공연은 당연히 하겠죠. 공연은 하는데 제 기억에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예술위원회에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고 모니터링이 어떻게 되고 피드백이 어떻게 되는지?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모니터링은 저희 담당자들이 다닙니다. 실질적으로 정산의 과정이나 포스터, 티켓판매 등을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담당자들이 실질적으로 주요한 공연들은 다 직접 참여를 해서 보고 있습니다.

김진각 위원 : 그러니까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원로예술인을 우대하고 이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고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을 들러리 세우는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검토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 사업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년 정도 사업 결과에 대해서 통계치와 결과보고를 같이 해 주세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들께서 판단하시기에 의미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알겠습니다.

이훈경 위원 : 김진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제가 연극 분야에 대해서 조금만 답변을 드리면, 연극분야 쪽에는 ‘늘푸른연극제’ 라는 비슷한 사업이 타 기관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연극제나 이 사업을 봤을 때 연극분야에만 한정되어 말씀드리자면 현장예술가들이 이 사업에 대한 관심도나 집중도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단체들마다 아예 1년 전부터 이 사업과 ‘늘푸른연극제’ 를 겨냥해서 작품을 쓰고 만들고 준비하는 경향이 많고요.

실질적으로 공연을 보면 원로예술가들이 상당 부분 중심이 된 공연이 대다수고 또는 원로예술가들이 연출을 하거나 제작자의 입장이 돼서 만들어지는 공연이 많이 선정되는 것으로 보여져 저는 현장에서 공연을 모니터링하고 관람했을 때 ‘늘푸른연극제’ 나 이 사업 같은 경우 연극 분야만큼은 많이 현장에서 인식하고 있고, 사업에 맞는 작품을 찾고 원로들을 우대하고 있다고 보여 답변을 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3시 15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5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두 번째 보고안건을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두 번째 보고안건인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에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가 발표되어 해당되는 내용과 후속조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료 72페이지 평가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부터 공공기관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만, 2019년도에 공운법 5조에 따라서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이 되어 기재부 평가가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경영실적평가를 수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평가 수검대상은 총 38개 기관이었고 5개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평가는 크게 경영관리 부분과 주요사업 2개 범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영관리 범주에는 5개 지표 16개 세부지표가 있고요. 주요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술창작역량강화, 향유, 가치확산 등 3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관평가 내용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2022년도 12월부터 지표별 직무 직원들을 12명 선발해서 기관 전체 실적과 성과를 집약해서 본보고서를 약 8주, 그러니까 2023년도 1월부터 3월까지 8주간 저희 나주 본관에 있는 다목적홀에서 집중적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 계량이나 비계량 현장실사를 대응하고 이후인 6월 21일에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결과는 저희가 A등급이 나왔습니다. 우수 등급이 나왔고요. 2020년도부터 3년 연속 A등급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그림표를 보시면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문체부 평가로 들어와서 받기 시작한 것이 2019년도입니다. 2018년도까지는 기재부 평가를 직접 받았고요. 2019년도 한 해에 B를 받았고 이후에는 계속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2020년도에는 저희 기관만 해당이 되었고 작년에는 2개 정도 기관이었고 이번에는 3개 기관이 A

등급을 받았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73페이지에 38개 기관 유형과 점수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문화진흥기반에 저희가 속해 있는데 저희 기관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도 좋은 성과를 받았고요. 맨 밑에 보면 자회사가 있습니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올림픽공원 쪽을 관리하는 기관인데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받았던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간 어려웠던 부분으로 문화진흥기반 쪽에서 좋은 성과가 없었는데 저희가 오면서 좋은 성과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후속조치로는 전 직원의 성과급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세부적인 지표별 평가결과 내용이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7월 중순에 세부 평가결과를 받게 되면 그 내용을 정리해서 각각의 지적사항을 정리하고 관련된 내용을 전사 공유를 해서 공유회를 개최하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차년도에 개선사항으로 반영시켜 조금 더 나은 경영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해서 제언해 주시거나 질의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송시경 사무처장 : 위원장님. 오늘 국무조정실에서 2023년도 청년정책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류재수 경영전략본부장 직무대행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오늘 국무조정실에서 청년정책에 대한 종합평가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었고 아르코청년예술가지원 사업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위원 일동 박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병국 위원장 : 예.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서포트를 해 주신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와서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보고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주연 문화예술후원센터장 : 2023년도 ‘아트 포레스트 페스티벌’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인데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문화예술에 대한 기부는 그냥 “기부해 주세요.”가 아니라 문화예술에 왜 기부해야 되는지 설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에 대한 기부보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기부 수준이 매우 낮고요. 개인기부는 2% 미만이고 기업기부도 4% 미만으로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에 대한 기부인식을 확산시키고 문화예술에 충분히 기부할 가치가 있고 기부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대국민 페스티벌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23일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에서 대국민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를 위한 페스티벌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현재까지 준비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료 74페이지를 보시면, 저희의 행사명은 그동안 여러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 ‘아트 포레스트 페스티벌’로 정하였습니다. 저희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10년 전부터 진행하던 문화예술 기부 브랜드가 ‘예술나무’입니다. 나무모형으로 형상화가 되어 있는 예술나무인데요. 나무 한그루가 아니라 나무를 모아서 예술후원의 숲을 만들고자 하는 염원이

담긴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에 미래 모습을 담아서 ‘아트 포레스트 페스티벌’ 이라고 페스티벌 명칭을 정했고요. 약간 중의적인 의미로 ‘Art for rest’라는 의미를 담아서 예술이 삶의 쉼표 역할을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추진예산은 총 6억 2,000만 원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자체예산으로 4억 원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기업 후원을 받아서 2억 2,000만 원을 충당하고자 후원 유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공동 주최에 동의해 주셔서 문체부와 예술위원회가 공동 주최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추진일정은 말씀드린 대로 9월 23일 토요일에 올림픽공원 잔디마당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가능하면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8잔디마당의 수용 인원이 약 1만 명입니다. 그곳에서 다른 야외 페스티벌이 많이 진행되는데요. 통상 1만 명 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도 1만 명으로 하는데 1만 명 중에 약 2,000석을 초대석으로 예정하고 있고 티켓을 판매하는 좌석이 8,000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관람층은 저희가 앞으로 새로운 후원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20~30대 청년과 장소와 시기적인 특성을 반영해서 가족 단위를 생각하고 있고요. 관람료는 현재 1인당 3만 원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추가 할인제도가 여러 가지 프로모션들을 함께 운영할 예정입니다. 수익금은 2억 원 내외의 티켓판매 수익이 예정되고 있는데요. 수익금 전액은 ‘예술나무’에 기부금으로 처리하여 차년도에 가치 있는 예술 활동과 예술 향유를 위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은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메인스테이지에서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진행될 것이고요. 30개 정도의 부스를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그중에는 예술체험부스를 운영해서 공연으로 담기 어려운 문학분야나 시각분야의 다양한 예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당연히 후원기업의 부스라든가 음식물 관련된 부스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인스테이지에서의 공연은 저희가 초반부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사실 객석이 1만석이기에 때문에 1만석을 채워야 하는 부분이 저희의 제일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관객동원력이 높고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과 함께 콘서트 형식으로 전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아티스트들이 예술위원회와 연관성이 있고 후원에 관심이 있는 아티스트들을 섭외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현재 섭외가 완료된 아티스트들이 있고요. 아직 섭외가 진행 중인 아티스트들은 저희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중음악 쪽의 아티스트들은 저희가 연락 중이데 확정이 되지 않아서 기재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은 기부에 대한 관심이 많은 아티스트 또는 사회공헌에 관심이 많은 아티스트들로 섭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연의 콘셉트는 재즈, 퓨전국악 그리고 뮤지컬, 성악으로 하고 있고요. 마지막은 조수미 선생님이 저희 행사 취지에 공감을 하셔서 나와 주시기로 하였고 조수미 선생님이 마지막을 장식해 주실 예정입니다. 공연시간은 오후부터 저녁까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야외부스는 대내외 협력을 통한 공연예술 외 문화예술 체험부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각이나 문학 같은 장르들도 참여하고요. 저희 생각으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다른 국공립 미술관과 같은 외부의 유관기관들까지도 협력할 수 있도록 하여 범문화예술을 알릴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기업부스는 당연히 후원이나 물품후원, 협찬하는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기업들이 들어와도 단순히 그냥 기업 홍보가 아닌 관객 대상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체

험을 할 수 있는 이벤트 부스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식음료부스는 통상적인 야외페스티벌처럼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스티벌 연계 프로젝트인데요. 페스티벌이 9월 말로 예정되어 있고 봄업을 위해 최소 1~2개월 전부터 사전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통상적인 홍보는 별도로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홍보, 지하철 홍보 등 여기저기 외부에 노출하는 그런 홍보와는 별도로 예술나무 SNS 기부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서 예술가, 유명인사, 애호가 등이 ‘우리가 먼저’ 기부하고, 문화예술 가치에 공감하고, 후원을 하겠다는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서 봄업을 해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를 확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1안, 2안, 3안이 있는데요. 플랫폼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는 현재 논의 중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전 캠페인과 본 행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기부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외 없는 예술이라는 큰 가치 아래 예술에 있어서 소외는 없다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사회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와 고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문화예술로 살맛을 느끼게 해주기 위한 소외청년 예술지원 프로젝트로 다음 연도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페이지를 보시면 기업 협력과 후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저희 행사 바로 전주에 올림픽공원에서 체육진흥공단과 한국체육산업개발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조이올팍 페스티벌이라는 행사가 진행됩니다. 대중음악 페스티벌인데요. 예산절감이나 환경오염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페스티벌에서 만들어진 무대를 인수해서 사용하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대와 프로덕션 인수는 그대로 하기로 했고 거기에 대한 비용 문제, 저희가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하느냐는 실무전끼리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공연할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조금 더 확산하기 위하여 방송국 혹은 온라인 플랫폼과 협의 중인데요. 방송국과 협의를 확정 짓기 위해서는 그 전에 출연 아티스트들의 의사가 확인되어야 하는 상황이라서 지금 아티스트에게 문의를 하고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기업 후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2,000만 원이라는 많은 금액을 기업에서 유치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여러 기업과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후원을 해 주기로 약정한 기업들이 3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아직 목표한 2억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모금하지 못했지만 지금 여러 기업에 특히 위원장님이 주도적으로 나서 주셔서 접촉을 하고 후원금을 만들어 나가는 중입니다. 그 밑의 예우 항목은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고안건이라서 자료를 많이 준비하지 않고 행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만 준비를 했고요. 홍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생략하고 기본적인 개요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거나 좋은 제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정숙 위원 : 저는 한 가지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술나무와 관련해서 문화예술후원센터가 어찌 보면 소극적이었던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에나레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반갑습니다만, 이런 중

요한 페스티벌을 구상하는데 있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오늘 다 결정된 보고를 받는다는 게 조금 섭섭한 거죠. 사전에 저희가 큰 도움은 드릴 수 없겠으나 적어도 페스티벌 명칭을 정하는 부분이랄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저희들과 한 번쯤은 사전에 의견 조율을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물론 사무처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저희 위원들이 마치 관객같이 느껴지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보고 받는데 있어서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섭섭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지엽적인 것으로 지금 잘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요. 예컨대 팜페라 섭외자 중에 팬텀싱어4의 2개 그룹을 섭외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예컨대 오늘 CBS 김현정 뉴스쇼에도 포르테나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팀은 이미 섭외를 했다가 안 된 것인지? 그 팀만 왜 빠뜨렸는지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지만 그동안은 열개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일단은 예산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보고를 드렸다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보고를 못 드렸던 것이고요. 결정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안을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린 것이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더 들어서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예산은 여기저기에서 굽어모아서 4억이라는 기본예산이 확보되었고 나머지 출연진은 우리가 얼마만큼 잘 섭외를 해서 좋은 뮤지션을 데려오느냐 안 데려오느냐가 결정되는 것인데요. 다만, 메인은 결정이 되어야 뭐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수미 선생님께서 메인이 결정된 것도 얼마 전에 결정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보고를 드리는 게 첫 번째 안으로 보고를 드리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도 확정된 것은 없으니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진각 위원 : 정정숙 위원님께서 섭섭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내용은 예술후원활성화 소위원회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오늘 소위원회가 오전에 있었는데 처음으로 ‘아트 포레스트 페스티벌’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왔습니다. 이 정도 톤으로 가면 어떠한 안 정도니까요. 이것은 논의를 해야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리고 아까 팬텀싱어는 왜 그렇게 되었나요?

임주연 문화예술후원센터장 : 지금 위원장님과 김진각 후원활성화 소위원회의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 아티스트 계약 등은 확정된 게 없고요. 저희가 단지 대관신청은 빨리 해 놔야 하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측에 대관신청서를 넣기 위해 가칭으로 ‘아트 포레스트 페스티벌’이라고 우선 정했습니다. 당연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되고 오늘 이 자료는 보고를 드릴 수준으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만든 것이고요. 그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반영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팬텀싱어4에서 1위 팀이 리베란데, 2위 팀이 포르테나, 3위 팀이 크레즐입니다. 통상적으로 가장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1위 팀을 섭외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했고요. 만약 1위 팀 섭외가 안 될 경우 3위 팀을 섭외대상으로 적어놓은 이유는 3위 팀 멤버 4명 중에 1명은 공연예술창작산실로 지원을 받았던 아티스트이고, 1명은 국립창극단 소속으로 국악을 하는 아티스트라서 저희 예술위원회 지원분야하고 조금 더 관련성이 높다고

생각해 1위 팀과 3위 팀을 섭외 예정이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2위 팀 팬이지만 그런 이유로 기재를 해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중열 위원 : 사실은 이렇게 붐업을 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점에서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을 부르는 것은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저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부 음악장르로만 구성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음악이 배경으로 깔리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부스에 가서 활동을 하는데 음악은 흘러들게 돼요. 사실 그런 것보다는 음악도 있지만 다양하게 연극도 한 스테이지를 한다거나 하는 등 다양한 스테이지를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정말 저렇게 좋은 예술작품을 우리가 후원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대중음악가수도 좋죠. 그렇지만 “그 팀이 와서 부르는 것과 우리의 기부가 연관이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훈경 위원 : 저도 앞에서 말씀하신 것에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제가 드리려고 했던 얘기가었는데 먼저 앞에서 해 주셨는데요. 아까 크레줄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예술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각 분야별 사업들이 있으니 그중에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팀 중에 한 팀이 들어가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이런 야외 행사에 연극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연극은 추천을 안 하지만 무용이나 음악, 국악 쪽에는 우리 예술위원회를 통해 지원받은 예술가들이 있다면 그들이 한 쪽지 정도 들어가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 그것도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주연 문화예술후원센터장 : 위원님,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도 당초에 예술위원회 행사이니 만큼 기존에 문예진흥기금지원을 받은 아티스트들이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요. 이렇게 후보 리스트도 구성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후보 중에서 현재 ‘추다혜차지스’ 같은 경우는 문예진흥기금, 그러니까 이 팀으로 받은 적은 없지만 ‘추다혜차지스’의 멤버들이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을 받은 경험들이 있고요. 그리고 뮤지컬 쪽에서는 최재림 씨 역시 공연예술창작산실 홍보대사로 예술위원회와 관련된 아티스트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미진 위원 : 센터장님, 그런 설명은 지금 안 들어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조금 걱정이 돼서요. 너무 애를 쓰고 계신데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내일이면 7월이거든요. 7월부터 붐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프로그램 하나도 제대로 섭외가 안 된 것 같아서요. 거기에다가 프로그램을 보면 2시부터 9시까지 계속 공연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1팀이 1시간씩 공연을 하는것으로 짜놓으셨는데 너무 러프하게 되어 있어서요. “아직까지 이런 상태여도 괜찮을까?”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야외에서 굉장히 크게 하는 행사인데 그날 비올 확률은 몇 %인지 확인은 해 보셨어요?

임주연 문화예술후원센터장 :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아티스트 섭외는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주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기획사와 조금 조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며칠 늦어지는 정도로 다음 주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시간은 일찍부터 오 뜯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티스트 팀당 1시간씩 공연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공연시간은 30분에서 40분 정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무대전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시간씩 배정을 해 놓은 겁니다. 무대전환 시간이 보통 20분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환시간에

는 다양한 이벤트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미진 위원 : 그러면 7시간을 거기에 앉아 있어야 해요?

임주연 문화예술후원센터장 : 보통 페스티벌은 그렇게 앉아 있으니까요. 야외 페스티벌 같은 경우 하루 종일 돛자리를 깔고 앉아 있으니까요.

장미진 위원 : 락 페스티벌 정도면 그렇지만 이런 행사를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드물지 않나요?

임주연 문화예술후원센터장 : 보통 파크 페스티벌 같은 경우 2시부터 오픈해서 밤늦게까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어보신 부분이 우천 관련해서인데요. 아직 비올 확률은 일정이 너무 멀어서 체크를 하지 않았지만 우천 관련 대비 계획은 수립을 했고요. 비가 올 경우 강수량에 따라서 시간 당 몇 미리 이하의 경우에는 정상진행, 시간당 3에서 6미리 이상인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일시 정지 그리고 정말 폭우가 내리는 경우에는 주최 측의 판단으로 취소가 가능하다는 내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고 결정 내용은 공연일 오전 8시와 11시에 발표를 하는 것으로 티켓 발매 시 공지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천 시를 대비해서 관객 수에 맞춰 당연히 우비는 준비를 해 놓고요. 그리고 전일이나 당일 우천 시에도 별도의 잔디보호대 없이 젖은 잔디 위에 돛자리를 깔고 관람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배은주 위원 : 저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올림픽공원은 이런 피크닉이나 이런 페스티벌이 열리는 시기이고 불특정 다수의 관객들이 관람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공연장 특성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고요. 지금 문화예술후원센터에서 이 정도 규모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후원페스티벌 같은 것을 하셨던 경험이 있는지를 여쭙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부관람자 8,000명이라고 하셨는데 예술나무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서 이 정도 규모는 아니지만 후원매개나 메시지를 진행하시면서 이런 모임 등은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매칭을 하면서 만남의 행사들을 한번도 안 하셨나요?

임주연 문화예술후원센터장 : 이 정도의 대규모 행사는 처음입니다.

배은주 위원 : 그런데 소규모는 하셨던 거죠?

임주연 문화예술후원센터장 : 예. 그러니까 작은 규모의 네트워크 프로그램, 특히 수혜자들과의 미팅 프로그램 같은 것은 매년 상시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대국민 기부 홍보라든가 기부 캠페인도 코로나 이전에 서울랜드 같은 곳에서 아티스트가 참여해서 공연을 진행한 적은 있습니다만, 공연 형식의 대규모 페스티벌은 처음입니다.

배은주 위원 : 기부관람자 8,000명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정하셨나요? 불특정 다수가 온다고 해도 기본 메인이 되는 관객들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데이터를 토대로 이렇게 정해 놓은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부연설명을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1인당 3만

원의 티켓 가격을 정하셨잖아요? 티켓이 판매되는 업무매뉴얼은 예스24나 티켓팅을 정식으로 오픈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후원사를 통해서 티켓판매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방식이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대규모 행사를 계획하셨고 기간상으로 짧지만 전혀 무리가 되는 스케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두 달 정도가 더 남은 기간이고 자그마한 행사를 하셨던 경험이 있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들의 좋은 아이디어와 방안을 통해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주연 문화예술후원센터장 : 답변을 드리자면, “왜 8,000명이냐?”, “왜 1만 명이냐?” 라고 말씀하시면 이 부분은 저희가 소외계층이나 무료로 초대하는 인원을 2,000명으로 배정했고요. 저희가 이와 관련한 풀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를 후원하는 기업들이나 저희 사업과 관련된 소외계층들은 당연히 이 인원으로 초대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했고요. 나머지 8,000명은, 사실 1만 명이라는 것 자체가 수용인원에 맞춰서 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생각하기에 8,000명의 티켓을 사는 사람들이 문화예술 후원에 관심이 많아서 돈을 내고 공연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아티스트들에게 관심이 많아서 보러 왔는데 와보니까 “후원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현장에서 후원도 하고 체험도 하고 앞으로 후원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는 부분에서 목표한 것입니다. 티켓 판매 부분은 당연히 대규모 야외 페스티벌이기 때문에 티켓링크나 인터파크 등 티켓 판매 플랫폼을 통해서 진행 될 것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좋은 아이디어도 제안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문화예술후원센터가 기획하고 준비하지만 실행은 전문기획사가 붙는 것이고요. 전문기획사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아티스트들의 수준을 확인하고 전문기획사가 이 정도면 티켓 비용 3만 원으로 충분히 채울 수 있다는 답이 나와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아마추어적인 관점에서 우리 사무처에서 한 것은 아니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이것을 운영하는 전문기획사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이틀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추후라도, 이게 확정은 언제까지죠?

임주연 문화예술후원센터장 : 저희가 어차피 포스터 등이 나오는 시기와 티켓 판매는 7월 말 정도부터 진행이 될 예정이라서 7월 중순까지 확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좋은 의견이 있으면 주시고요. 요즘 페스티벌이 아침부터 하루 종일 밤을 꼬박 새워가면서 돛자리를 깔고 노는 게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아까 장르별로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주변에 부스를 통해서 그런 것을 구현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아까 무대전환 시간 사이에 무용이라든지 다른 장르들이 함께 무대를 장식해 주면 더 다양한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것도 같이 기획사와 협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임주연 문화예술후원센터장 : 저희도 처음에 그 행사를 기획할 때는 오히려 공연예술의 전 장르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방안으로 고민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음악 장르 위주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르들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극은 상대적으로 어렵겠지만 무용이라든가 다른 장르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소화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고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장르별로 부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집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후부터 저녁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부스를 운영해서 장르별로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연구해 보세요.

임주연 문화예술후원센터장 : 예, 알겠습니다.

정정숙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코로나 이후 전국적으로 축제들이 9월, 10월, 11월에 집중해서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말하면 ‘축제망국’ 이런 론을 전개하는 분도 분명히 계세요. 우리의 축제는 예술후원을 위한 예술제의 성격이 분명히 있는데요. 회의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축제들과 예술위원회에서 처음 하는 예술제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인식될지가 조심스럽거든요. 저는 아까 섭섭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름을 우리가 그냥 정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예술인들에게라도 축제의 명칭을 공모하는 게 좋을지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위원회 사무국이 그렇게 만능이야?” 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6억을 써서 하는 축제라고 하면요. 그래서 예술인들을 후원하기 위한 기금을 모은다는 취지의 예술제를 사무처에서 전문기획사하고 같이 그냥 뭔가를 했다는 게 과연..... 국민들에게 재미는 주겠지만 예술인들에게 이게 어떻게 어필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이 조심스러워서 그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김진각 위원 : 오늘 오전에 예술후원활성화 소위원회에서 논의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결론은 못 내렸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타이틀인데요. ‘아트 포레스트 페스티벌’ 이라는 타이틀이, 사실 이 행사가 예술에 대한 기부가 너무 미진하고 예술기부의 확산을 알리는, 일종의 서막을 여는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페스티벌과 전혀 다른 성격으로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지향점을 갖고 가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트 포레스트 페스티벌’ 이 그런 취지를 담을 수 있는 타이틀이냐?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할 수 있는, 예술기부를 위한, 기부 유도를 위한 차별화된 페스티벌이라는 것이 제목에 반영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논의를 했습니다. 아마 다음에 논의를 할 때 그런 것들이 구체화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주시면 좋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행사를 예술인들에게 또 공모를 해서..... 그러니까 예술인들의 대표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과연 대표성 있는 예술단체나 예술가들. 이런 분들에게 이런 행사 제목에 대한 아이디어를 달라는 게 적절하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정숙 위원 : 저는 이 이름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이 축제의 명칭은 다른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최소한 예술인들에게 또는 ‘에나레터’의 구독자들에게 “우리가 이런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한 번 정도는 확인차 물어보는 과정을 거치는 게 우리가 공공서비스기관으로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정병국 위원장 : 홍보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제목을 올려놓고 의견을 들으면서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것을 받겠다고 해서 일정 기간 한번 해 보죠.

배은주 위원 : 저는 이름은 이렇게 해서 의견을 듣는 것은 찬성합니다만, 이름에 명분과 취지가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월에는 전국에서 많은 축제와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축제와 이 축제가 이름만으로 차별화 되었다는 것을 ‘아트 포레스트’라는 이름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술인들도 이 축제에 의해서 예술인들이 어떤 수혜나 혜택을 입는지 알고 예술인들이 이 축제에 많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수익금 전액은 기부금으로 들어와서 예술인을 위해서 쓰인다는 취지를 담아 “예술인의 지원을 위한 아트 포레스트”라는 이름으로 완결을 지으면 축제가 다른 페스티벌과 차별도 되고 명분과 우리의 목적, 공익성도 나타나니 참여하는 사람들도 소비를 하면서 기부를 하는 축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그것을 감안해서 논의를 하신 후 좋은 안을 만들어 보시죠.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네 번째 보고서항인 제4차 예술후원활성화 소위원회 개최 결과에 대해서 김진각 위원님이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진각 위원 : 사실 6월 초에 있었던 회의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그때 저희가 3가지 안건을 갖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기부라는 하나의 목적을 갖고 이 기부를 끌어내기 위한 방안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 이것을 단기적으로 수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안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건은 제주 해비치아트페스티벌 관련된 것인데 이미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논의했던 ‘예술나무 페스티벌’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가칭 ‘아트 포레스트 페스티벌’로 방향을 잡았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트 포레스트 페스티벌’도 장기적으로 보면 예술기부의 확산으로 끌고 가기 위한 행사로서 가져가야 한다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중장기 목표에 담을 필요가 있고 기본적으로 예술위원회에서 그동안 이것과 관련한 연구용역도 했었고요. 그런 것을 참조해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조금 더 예술기부를 끌어낼 만한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논의해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술나무 페스티벌’에 대한 추진현황도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것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나눴고 다음 회의 때는 9월에 있을 행사와 관련해서 제목을 구체화하고, 라인업을 확정하고, 기부를 끌어낼 만한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 것인지? 그런 것까지 함께 논의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9월 축제와 관련해서 티켓팅을 한 사람들을 후원회 회원으로 전환할 수 있게, 온라인상에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시죠. 3만 원을 내고 내가 아르코 예술나무 후원자가 되었다. 되었을 경우 후원인에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공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0년이 되었는데 예술나무 회원이 500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알려져 있지도 않고 잘 진행이 안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를 들어 8,000명 중에서 절반인 4,000명이라도 후원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계속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정정숙 위원 : 위원장님, 방향을 보완하자면 어떤 페스티벌을 할 때 참여자에게 저희가 티켓을 판매하잖아요. 그런 경우 그 티켓에 미래의 기부 행위를 연동시키는 것 자체는 선택지로 줄 수는 있지만 조금이라도 강요성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서요.

정병국 위원장 : 선택을 하도록 하는 거죠.

정정숙 위원 : 강제성은 전적으로 배제하는 형태로 선택지를 주는 문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다른 것은 티켓팅하고 공연을 보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회원이 되면 어떠한 정보도 얻을 수가 있고 어떤 것을 제공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사전에 공지해서 선택을 하게 하면 관심을 유도하는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주연 문화예술후원센터장 :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티켓팅을 할 때 예술나무운동이라는 캠페인이 있고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이러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그리고 “이 행사의 목적이 그런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스토리텔링을 잘 해서 많은 사람들이 후원자로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그러면 다섯 번째 보고안건으로 제3차 윤리·인권 소위원회 개최결과에 대해서 장미진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장미진 위원 : 조금 다른 쪽으로 가서 낫설 것 같은데요. 저희는 2가지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술지원 상황에서 사각지대로 소외된 그룹을 찾아봤어요. 이훈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무대기술 관련해서 제작하시는 분들의 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생각보다 이분들의 상황이 아직도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80년대 배우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행려병자의 기준으로 보험처리가 되었던 상황과 무대제작자들은 아직 크게 변화가 없더라고요.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가 만들어진지가 20년이 되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극장에 계신 분들은 많이 보호를 받고 계시지만 외부에서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사업자등록을 낼 수가 없고 보험을 들기도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직업분류도 지금 정확한 게 없어요. 예술인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시고 서비스업이나 유통업으로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분들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젊은 인력이 수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50세가 다

되신 분이 막내인 경우도 많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앞으로 계속 해 보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배은주 위원님께서 주도적으로 장애인 예술환경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려고 하십니다. 인식도 개선하고 환기시키기 위해서 9월쯤에 국회에서 세미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다음 주 정도에는 조금 더 윤곽이 잡힐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장미진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윤리·인권 소위원회와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정숙 위원 : 무대인력과 관련된 관점은 너무 좋고요. 계속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보고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사실 윤리·인권 소위원회가 과거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소위원회 그리고 성평등과 관련된 소위원회의 성격을 계승한 소위원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서울국제도서전이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로 치러졌는데요. 그 국제도서전에 홍보대사로 우리 위원이었던 ○○○ 선생님이 위촉되어 개막식날 문제가 있었죠. 그분이 나중에 사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문제는 좀 정리가 되었습니다만, 이런 건들을 우리 윤리·인권 소위원회가 정보를 잘 알고 계셔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 예술위원회는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지? 그런 것들도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문체부에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가 있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그런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소위원회에서 한 번 정도 정리를 해주신다거나 논의를 해보시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여섯 번째 보고안건인 심의제도운영개선TF 5차-6차 회의 및 워크숍 개최 결과에 대해서 장인주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인주 위원 : 우선 지난 6월 21일이었죠. 위원님들 모두 바쁘신데 많은 위원님께서 참여해 주신 가운데 지원심의제도개선 워크숍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날 심의제도운영개선에 관한 큰 방향과 세부 내용 등을 설명드렸고요. 의견을 주셔서 그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그날 참석하지 못한 두 위원님께는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아시는 내용들은 넘어가고요. 오늘 심의위원 자격기준 개정부분이 조금 전에 의결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반영하기로 하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7월 7일 오후 2시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될 텐데요. 심의위원제도개선 관련한 토론회를 합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공지가 올라가 있고요. 그때 위원님들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내용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비선정위원회가 진행될 때 각 장르 위원님들과 문화일반의 5인 위원님들께서도 참여해 주시는 것으로 하여 그때 자세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이 안건보고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충분한 논의를 하셨기 때문에 의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술과기술융합기반구축 TF 5차 회의결과에 대해서 김미라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김미라 위원 : 예. 지난 6월 16일 예술가의 집 세미나실에서 5차 회의를 했고요. 참석인원은 대면과 비대면을 포함해서 총 21명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주요 안건은 부서 간 사업안건 공유를 통해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의 진행상황을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예술인력양성부의 2022년 APE 캠프 해외리서치트립 사례 공유가 있었습니다. 작년 프로그램을 진행하셨던 외부위원 2인이 독일 ZKM하고 영국팀의 타켓리서치 및 자유리서치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를 해 주셨고요. 이 내용에서 주요 시사점으로 APE 캠프의 리서치트립을 수행한 팀들이 그 내용을 발전시켜 융합예술부의 창작지원사업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서 간 사업들이 1회성 지원이 아니라 리서치에서 창작지원, 유통, 아카이빙으로 이어지는 순환체계가 아르코지원사업 내에서 구축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성을 발견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융합예술부와의 협력방안 논의사항으로 8월 31일에 진행예정인 2023년 APE 캠프 사업에서 예술과 기술융합의 APE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2022년도에 국제리서치트립을 진행했던 기관의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기조강연 및 발제를 진행하고요. 그 기관들 간 국제네트워크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세부 프로그램 내에서 저희가 예술과기술융합의 지원 트랙 사례 발표도 구성해서 대표적으로 예술인력양성부와 융합예술부의 부서 간 지원사업의 협업과 발전방안에 대한 사례 공유 발표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 사례발표로 어떤 작품을 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정리가 되면 결정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의 리모델링 타당성조사의 마지막 진행상황 공유였습니다. 타당성 연구용역이 7월 11일까지라서 협의의 마지막 단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한 협의사항은 첨부해 드린 표와 같습니다. 88페이지고요. 지금까지 여러 차례 회의를 걸쳐서 협의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결과보고서는 7월 TF회의에서 공유하고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후속 회의일정으로는 오늘 보고드린 2가지 사항에 대해서 심화하고 결과 공유를 위해 7월 21일에 6차 회의를 예정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붙임자료를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이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정숙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여쭙보겠습니다. 우리 TF에 외부위원 2인이 계신데요. 이 분들은 이 TF에서 꾸준히 활동하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이번 회차에만 임시로 오신 분인가요?

김미라 위원 : 이번에만 임시로 오신 분입니다. 주제에 따라서요.

김미라 위원 : 이 두 분이 작년 APE 캠프에 해외트립을 직접 인솔하고 가셨던 분이어서 그날 회의에 오셔서 사례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지난번에 제가 IFACCA 총회에 갔을 때 우리 위원회 예술융합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소개했어요. 소개를 했는데 엄청나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칭 하는 프로그램 중에 청년예술인들 교육하고 기업을 선발해

서 소개해 주고, 기업하고 예술인을 매칭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신청하게 되면 심의를 해서 그것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얘기했더니 참여하고 싶다는 나라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무처와 협의하기는 내년부터 10명 정도는 각 나라에서 1명 정도 선발해서 우리가 벽제의 예술인력개발원에 숙소도 있기 때문에 인바운드 레지던시 같이 해서 기숙을 하게 하고 교육프로그램에 참여를 시키고, 가능하다고 하면 같이 교류를 해서 외국 예술가들과 우리나라 예술인들이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APE 캠프 같은 경우 이것은 단기간이잖아요? 시범적으로 8월 31일이니까 지금 준비해서 아시아권에서 초청할 수 있으면 그것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가능할지는 검토를 해 보시죠.

김미라 위원 : 융합예술부하고 협의를 해 보고요. 일단 저희가 작년에 했던 기관의 분들을 모셔서 기초발제를 하는 것까지는 고민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이 가능한지 여쭙보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중심으로 EU 문화파트 쪽과 제안한 것은 저희가 나라 하나를 정해서 양국이 공동기금을 마련해서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지난해까지 영국이 끝났고 올해는 캐나다하고 실행을 하는데요. 그것을 EU 하고도 하자고 제안을 했더니 EU가 구체적으로 스텝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 사업이더라고요. 기술 융합이요. 그것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공동기금을 마련해서 아프리카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같이 하자고 해서 그것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IFACCA 총회에서 많은 다른 나라가 한국이 이 분야를 어떻게 하는지 관심들이 많아서 이 분야를 중심으로 한 차기 IFACCA 총회를 한국에서 하자는 제안을 해 놓은 상태고 저희가 제안서를 7월까지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 10월 IFACCA 이사회에서 논의를 하게 될 텐데요. 다른 나라도 제안서를 내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보고를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신가요?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보고사항에 대해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다음은 2023년도 7월 위원회 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사무처장은 일정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 일정 조정)

6. 폐 회 선 언

정병국 위원장 : 차기일정은 7월 28일 오후 2시 아르코미술관 3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9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20분 회의 종료)